

寢具類의 使用 實態에 關한 調查 研究

- 大邱地域과 全國 8大 地域의 比較 -

鄭 燕* · 成 秀 光

*大邱曉星가톨릭大學校 衣類學科 講師, 大邱曉星가톨릭大學校 衣類學科 教授

A Study on Survey of The Actual Use of Bedding

- Comparisons Between Taegu and Other Areas -

Jung, Yeon*, Sung, Su Kwang

Instructor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Catholic University of Taegu-Hyosung

Prof.,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Catholic University of Taegu-Hyosung

Abstract

Sleeping is important for human being in that it has a great effect on their daily activities. Considering that an average adult sleeps seven to eight hours a third of our life is spent in bed.

The present study intends to make consumers aware of the important of the bedding science and help the manufactures develop efficient, up-to-date beds. For these two purposes, consumers' recognitions and opinions on the features of the bedding were surveyed. In the study, a questionnaire consisting of various items on the features of the bedding was designed and distributed to consumers in 8 regions & Taegu in Korea to survey the patterns in which they buy, use, and maintain their bedding. The result of the study are as follows; Air conditioner is widely used popular because of hot weather in Taegu. People in Taegu mostly purchase their bedding from market, in every 5~6 years. The important point to be considered for bedding purchases were humidity absorption, air permeability, light weight in summer comforters, thermal insulation, flexibility, color·figure·design in winter comforters, humidity absorption, flexibility, color·figure·design in mats. As summer bedding, a sheet of single-layer quilt and rush mat were most popular which indicates climate of hot and humid weather in Taegu. Bedding uses in winter were in order a sheet of cotton, silk, wool quilt, and silk quilt showed high level in contrast to other areas. Dissatisfactions with summer quilts were humidity absorption, air permeability, heaviness and in winter quilts they were dissatisfied with thermal insulation, heaviness, flattening. In details about bedding managements, people in Taegu most frequently disinfected their bedding by sunlight in one month, and refinished every 5 years.

I. 서 론

수면은 낮의 활동을 좌우할 정도로 그 역할은 중요하며 신생아는 하루 약 16~17시간, 생후 6개월~1세는 13시간, 성인은 7~8시간의 수면을 취하므로 사람은 하루의 약 1/30이상을 침상에서 지내는 셈이 된다.

¹⁾ 따라서 주간생활에 있어서의 환경 및 의복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야간의 수면 환경 및 침구의 연구는 대단히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수면환경의 구성요소에는 소리, 빛, 열, 공기가 있으나, 침구는 이 중에서 열에 대해 적절한 신체환경을 형성하는 역할을 담당하므로 쾌적한 수면을 이루기 위해서 침구가 하는 역할은 매우 크다. 또한 시대, 지역, 기후, 풍토, 민족, 습관 등에 따라 역사적

·사회적으로 발전되어 온 침구는 일상 사용하는 의류보다도 사용빈도와 사용시간이 많고 사용연수가 긴 것이 특색이다.

한편, 20세기에 들어와 새로운 섬유 개발과 섬유 가공기술의 발전은 의생활에 큰 변혁을 가져다주었을 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우리들의 생활환경과 생활양식까지도 크게 바꾸어 놓았으며, 이것이 침구에 있어서도 현저하게 반영되어 침구의 재료, 종류, 구입, 사용 등 소비 패턴이 복잡 다양화되고 유행 사이클의 속도도 급격히 변화하는 경향이다. 그러므로 최근에 있어서의 침구의 사용실태를 명확히 아는 것은 침구 연구를 진행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생각된다.

국내에 있어서의 의생활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는 다수 보고 되었으나, 침구의 사용실태에 관한 조사연구는 현재까지 엄회영²⁾, 신상무³⁾에 의해 보고된 것과 성수광과 이승자⁴⁾에 의해 보고된 전국적인 조사연구 뿐으로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비해 일본에서는 野⁵⁾, 水梨 등^{6,7)}, 松本^{8,9)}, 酒井^{10,11)}, 전일본침장품협동조합¹²⁾ 등에 의해 침구의 실태조사가 보고된 바 있다.

본 연구는 소비자에게는 수면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생산자에게는 새로운 수요의 방향에 적합한 상품기획을 요구할 목적으로, 침구의 전국적인 사용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항목별·연령별의 침구사용·관리·구매행동 등을 분석하였고, 또한 이것을 대구지역과 대구를 제외한 전국 8대 도시(이하 기타지역이라 칭함)를 비교·검토하였다.

II. 연구 방법

1. 조사 대상자 및 기간

조사 대상자는 가정에서 침구를 취급할 기회 및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주부를 대상으로 대구광역시의 1,207명과 전국 8대 도시의 2,750명의 주부 3,957명이며, 조사기간은 1995년 12월부터 1996년 2월까지이다.

2. 조사 도구 및 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조사 대상자의 일반사항 9 문항, 침실에 관한 사항 6문항, 침구의 구입에 관한

사항 9문항, 침구의 사용에 관한 사항 9문항, 침구의 관리에 관한 사항 3문항으로 합계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방법은 조사도구를 조사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배포하고 일정 기간 뒤에 회수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측정도구의 전체 신뢰도는 cronbach $\alpha=0.730$ 이었다.

2. 조사 자료의 처리

조사 도구 7,600부를 대구광역시 및 전국 8대 도시에 배포하여 4,008부가 회수되었고 회수율은 52.7%이었다. 그 중에서 기입누락 등 부적절한 설문지를 제외한 3,957부가 통계처리에 사용되었다. 조사 대상자의 연령별 빈도수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통계적 유의성 검증은 SAS에 의해 χ^2 -test로 처리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사항

조사 대상자의 지역별·연령별 분포 상황은 <표 1>에, 조사 대상자의 일반사항은 <표 2>에 나타내었다.

대구지역 조사 대상자들의 연령은 30대 및 40대가 각각 61.2%, 36.0%로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55.6%로 가장 많았다. 가족 수는 4명 및 5명이 각각 57.1%, 22.5%이었고, 주부들의 38.8%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택 양식으로는 조사 대상자의 51.9%가 단독주택, 35.9%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주택의 방 수는 3개(45.7%)가 가장 많았고, 다음이 2개(33.4%), 4개(12.5%) 순이었다. 주택의 건평 수는 21~30평(31.4%)과 11~20평(29.5%)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41평 이상도 16.2%로 나타났다.

기타지역 조사 대상자의 연령은 30대(45.3%), 40대(51.3%)로 대구지역에 비해 40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의 비율은 같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자가 2.8%정도 더 높게 나타났다. 가족수, 직업을 가진 주부의 수, 연립 주택 및 아파트의 거주자 수도 전체적으로 대구지역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조사 대상자의 지역별·연령별 분포

지 역		단위 : 명 (%)				합 계
		20~29세	30~39세	40~49세	50세~	
전 국 8 대 도 시 지 역	서울특별시	4(0.1)	220(8.0)	295(10.7)	21(0.8)	540(19.6)
	부산광역시	7(0.3)	170(6.2)	262(9.5)	11(0.4)	450(16.4)
	인천광역시	3(0.1)	156(5.7)	252(9.2)	8(0.3)	419(15.2)
	광주광역시	4(0.2)	309(11.2)	189(6.9)	5(0.2)	507(18.4)
	대전광역시	4(0.2)	93(3.4)	179(6.5)	10(0.4)	286(10.4)
	청주 시	1(0.0)	150(5.4)	89(3.2)	1(0.0)	241(8.8)
	춘천 시	0(0.0)	55(2.0)	33(1.2)	0(0.0)	88(3.2)
	제주 시	3(0.1)	93(3.4)	111(4.0)	12(0.4)	219(8.0)
소 계		26(1.0)	1,246(45.3)	1,410(51.2)	68(2.5)	2,750(100.0)
대구광역시		10(0.8)	739(61.2)	434(36.0)	24(2.0)	1,207(100.0)
합 계		36(0.9)	1,985(50.2)	1,844(46.6)	92(2.3)	3,957(100.0)

〈표 2〉 조사 대상자의 일반사항

항 목	구 분	단위 : 명 (%)	
		전 국	대 구
		2,750(100.0)	1,207(100.0)
학 력	국민학교 졸업	145(5.3)	75(6.2)
	중학교 졸업	560(20.4)	269(22.3)
	고등학교 졸업	1,530(55.6)	671(55.6)
	대학교 졸업	473(17.2)	180(14.9)
	대학원 졸업	42(1.5)	12(1.0)
가 족 수	2 명	21(0.8)	9(0.7)
	3 명	183(6.7)	110(9.1)
	4 명	1,368(49.7)	689(57.1)
	5 명	764(27.7)	272(22.5)
	6 명	288(10.5)	90(7.5)
	7 명	126(4.6)	37(3.1)
	주부의 직업	사 업	396(14.4)
회 사 원		297(10.8)	110(9.1)
임시 근무		116(4.2)	44(3.6)
기 타		523(19.0)	192(15.9)
무 직		1,418(51.6)	740(61.3)
주택의 양식	단독 주택	1,046(38.0)	626(51.9)
	연립 주택	396(14.4)	82(6.8)
	아 파 트	1,193(43.4)	434(35.9)
	기 타	115(4.2)	65(5.4)
주택의 방 수	1 개	42(1.5)	33(2.7)
	2 개	674(24.5)	403(33.4)
	3 개	1,561(56.8)	552(45.7)
	4 개	383(13.9)	151(12.5)
	5 개	53(2.0)	36(3.0)
	6 개 이상	37(1.3)	32(2.7)
주택의 건평 수	10평 미만	104(3.8)	47(3.9)
	11~20 평	626(22.8)	356(29.5)
	21~30 평	991(36.0)	379(31.4)
	31~40 평	715(26.0)	229(19.0)
	41~50 평	197(7.1)	114(9.4)
51평 이상	117(4.3)	82(6.8)	

〈표 3〉 침실에 관한 사항

항 목	구 분	단위 : 명 (%)	
		전 국	대 구
		2,750(100.0)	1,207(100.0)
침실의 양식	온 돌 방	1,612(58.6)	810(67.1)
	온돌방에 침대	585(21.3)	249(20.6)
	침 대	475(17.3)	122(10.1)
	기 타	78(2.8)	26(2.2)
침실의 위치	지 하	160(5.8)	67(5.6)
	1 층	2,107(76.6)	911(75.4)
	2 층	304(11.1)	159(13.2)
	3 층 이상	179(6.5)	70(5.8)
침실의 용도	침실전용	1,724(62.7)	708(58.7)
	거실과 겸용	471(17.1)	256(21.2)
	서재와 겸용	166(6.1)	54(4.4)
	아동방과 겸용	278(10.1)	130(10.8)
침실의 냉방기구	기 타	111(4.0)	59(4.9)
	에 어 콘	106(3.9)	52(4.3)
	에어콘과 선풍기	353(12.8)	344(28.5)
	선풍 기	2,233(81.2)	803(66.5)
침실의 난방기구	기 타	58(2.1)	8(0.7)
	에어콘(난방)	62(2.3)	27(2.2)
	난 로	646(23.4)	309(25.6)
	중앙 난방식	934(34.0)	345(28.6)
	전기 장판	314(11.4)	92(7.6)
기 타	146(5.3)	63(5.3)	
사용하지 않음	648(23.6)	373(30.7)	

1) 침실의 양식

대구지역의 침실 양식으로는 온돌방이 87.7%로서 대부분이었고 침대 사용은 10.1%로 나타났으며 연령 층에 따른 유의차도 인정되어(P<0.001) 온돌방의 이용률은 연령층이 높을수록 많았고, 침대의 사용율은 30대가 다른 연령층 보다 많았다.

기타지역에서는 온돌방이 79.9%, 침대사용이 17.3%로 대구지역에 비해 침대의 사용이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에 따른 유의차도 인정되었다(P<0.05).

2. 침실에 관한 사항

침실에 관한 사항을 〈표 3〉에 나타내었다.

2) 침실의 위치

침실은 건물의 1층에 있음이 전체의 75.4%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연령층에 따른 유의한 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기타지역에서는 침실이 건물의 1층에 있는 경우가 76.6%로 나타났으며 1층에 있는 연령층이 40대(52.1%)가 가장 많았고 2층에 있는 경우는 20대(48.4%)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연령층에 따른 유의차가 인정되어(p<0.05) 대구와는 다른 경향을 나타내었다.

3) 침실의 용도

침실로서 사용되고 있는 방은 침실 전용이 58.7%, 나머지 41.3%에 해당되는 가정은 침실이 수면 생활의 장(場)인 동시에 거실, 서재, 아동방 등과 겸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에 따른 유의차도 인정되어(P<0.001) 침실 전용, 거실 겸용, 아동방과의 겸용에서는 30대가 각각 61.9%, 61.7%, 67.7%로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기타지역의 조사에서는 침실 전용이 62.7%로 대구지역에 비해 4.0%가 많게 나타났으며 연령간에 따른 유의차도 인정되었으나(P<0.001), 대구지역과는 달리 침실 전용, 거실 겸용, 서재와의 겸용에서 40대가 각각 52.2%, 50.0%, 61.5%로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서 소비자의 침실 공간은 너비나 전용성의 점에서 반드시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는 말하기 어려운 오늘날의 주택 사정을 말해 주고 있다.

4) 침실의 냉방기구

여름철 침실의 냉방기구로서는 선풍기가 66.5%로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에어컨은 32.8%를 나타내었다. 단, 에어컨의 수치에는 선풍기를 보조적으로 병용하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다. 연령에 따른 냉방기구의 사용에도 차를 나타내고 있어 20대, 30대, 40대에서는 에어컨의 사용이 평균 30% 이상을 나타내고 있으나, 50대에서는 1.0% 미만이 에어컨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선풍기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60대에서는 기타의 항에서 12.5%를 나타내고 있어 연령에 따른 유의한 차가 인정되었다(P<0.001).

기타지역에서는 에어컨의 사용이 16.7%로 대구지역

에 비해 그 수치가 절반 정도로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대구지역의 생활수준이 기타지역에 비해 높다는 표시라기 보다는 대구지역의 분지라는 지형적 특색으로 인한 기후의 영향, 즉 무더운 여름 날씨의 영향인 것으로 생각되며 연령에 따른 유의차는 인정되지 않았다.

5) 침실의 난방기구

대구지역의 겨울철의 온돌 이외에 사용하는 침실의 난방기구로는 난로(석유, 가스, 전기)와 전기장판이 각각 25.5%, 7.6%이었으나, 전혀 사용하지 않는 가정도 30.7%나 있었으며, 연령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p<0.001) 특히, 50대 이상 특히, 60대에서는 99%가 전기장판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령층에 있어서는 침상기후에 대한 보온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인지시켜 주었다. 또한 기타 지역 조사에 비해서 아파트 거주자가 적은 이유로 인해 중앙난방식이 적은 점이 눈에 띈다.

3. 침구의 구입에 관한 사항

침구의 구입에 관한 사항을 <표 4>에 나타내었다.

1) 구입처

현재 이용되고 있는 침구의 구입처는 침구 전문점, 시장, 백화점에서의 구입이 각각 41.3%, 40.2%, 10.5%였으며, 가정에서의 직접 제조는 6.1%에 지나지 않았으며 연령에 따른 유의한 차는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기타지역 조사에서는 시장에서의 구입이 23.5%로서 대구지역에 비해 16.6%정도 적게 나타났으며 침구전문점 및 백화점에서의 구입이 각각 55.7%, 14.0%로 대구지역에 비해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유의한 차도 인정되어(p<0.001), 침구 전문점에서의 구입은 20대가 가장 높았던 반면에 가정에서의 직접 제조는 연령층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어 이러한 경향은 침구도 일반 의류와 마찬가지로 직접 제조하여 사용되는 가정이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2) 구입빈도

구입빈도는 5~6년(50.7%), 2~3년(31.2%)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에 따른 유의한 차는 인정되지

〈표 4〉 침구의 구입에 관한 사항

항 목	구 분	단위 : 명(%)	
		전 국	대 구
		2,750(100.0)	1,207(100.0)
구 입 처	직접 제조	149(5.4)	81(6.7)
	침구 전문점	1,532(55.7)	502(41.3)
	백 화 점	386(14.0)	127(10.5)
	시 장	645(23.5)	485(40.2)
	기 타	38(1.4)	12(1.0)
구입의 빈도	하지않음	70(2.5)	25(2.1)
	2~3 년	954(34.7)	377(31.2)
	5~6 년	1,290(46.9)	611(50.7)
	10 년	307(11.2)	149(12.3)
	10 년 이상	129(4.7)	45(3.7)
양모이불의 보유수	없음	995(36.2)	567(47.0)
	1 매	387(14.1)	198(16.4)
	2 매	617(22.4)	228(18.9)
	3 매 이상	751(27.3)	214(17.7)
우모이불의 보유수	없음	1,254(45.6)	705(58.4)
	1 매	729(26.5)	278(23.0)
	2 매	491(17.9)	172(14.3)
	3 매 이상	276(10.0)	52(4.3)
앞으로 구입을 희망하는 이불	면	824(30.0)	407(33.7)
	견	485(17.6)	235(19.5)
	양 모	519(18.9)	158(13.1)
	우 모	645(23.4)	255(21.1)
	화학섬유	51(1.9)	34(2.8)
	혼 방	177(6.4)	78(6.5)
	기 타	49(1.8)	40(3.3)
앞으로 구입을 희망하는 요	면	1,407(51.2)	612(50.7)
	견	335(12.2)	180(14.9)
	양 모	405(14.7)	116(9.6)
	우 모	269(9.8)	97(8.1)
	화학섬유	53(1.9)	50(4.1)
	혼 방	204(7.4)	62(5.1)
	기 타	77(2.8)	60(5.0)

않았다. 그러나 기타지역에서는 5~6년(46.9%), 2~3년(34.7%)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60대의 경우 5~6년의 비율이 16.7%, 그 외의 연령층에서는 평균 40% 이상을 나타내고 있어 연령에 따른 유의차가 인정되었다($P < 0.001$).

3) 양모, 우모 이불의 보유수

대구지역의 양모 이불 보유가정은 53.0%를 나타내었으며 보유가정에서도 1매(16.4%)만이 아닌 2매 이상(36.6%)을 보유하고 있는 가정도 많은 것을 알 수 있었고, 기타지역 조사의 보유가정(63.8%)과 1매(14.1%) 및 2매 이상(49.7%)의 보유가정에 비해 월등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모 이불의 보유가정은 41.6%로 나타났으며 연령층별로 보면 30대가 가장 낮았고 20대와 60대가 높게 나타나 연령층간에도 뚜렷한 유의차가 나타났고($P < 0.05$). 기타지역 조사의 보유가정은 54.4%로 대구지역에 비해 11.3%가 높게 나타났다.

우모 이불은 젊은층과 사회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연령층에서 선호되고 있었는데 최근 경제 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이불, 베개, 침낭 같은 침구류에서 그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우모는 섬유의 2차원적인 적층집합체의 구조인 다른 솜에 비해 전혀 다른 3차원적이고 입체 독립 구조체의 집합이며, 보온성, 탄력성, 흡습성, 경량성 등이 매우 우수하여 이불의 충전재로서는 가장 적합한 소재라고 할 수 있어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4) 구입을 희망하는 침구

앞으로 구입을 희망하는 이불의 소재로는 면 이불(33.7%), 우모 이불(21.2%), 견 이불(19.5%)의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연령층간에도 유의차가 인정되어($P < 0.001$), 면 및 우모 이불은 40대, 양모 이불은 30대, 견 이불은 20대에서 가장 선호하였다. 그러나 기타지역 조사에서는 면 이불(30.0%), 우모 이불(23.4%), 양모 이불(18.9%)의 순으로 응답하여 대구 지역의 선호도와는 다른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연령에 따른 유의한 차는 인정되지 않았다.

한편 구입을 원하는 요의 소재로서는 면 요(50.7%), 견 요(14.9%), 양모 요(9.6%), 우모 요(8.1%)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지역 조사의 면 요(51.2%), 양모 요(14.7%), 견 요(12.2%), 우모 요(9.8%)의 순과 비교하면 대구지역의 소비자들은 양모와 우모 요의 선호도는 낮은 반면에 견의 선호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면에 대한 선호도가 여전히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인류가 오랫동안 사용한 소재로 사용 및 관리가 익숙하게 된 점과 요에 요구되는 성능인 탄성, 보온성, 흡습성 등을 구비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다른 지역에 비해 대구가 견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전통적인 보수성향이 강하여 견에 대한 인지도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사려된다.

〈표 5〉 침구 구입시의 중시점

구분	지역별	순 위		
		1	2	3
여름이불	전 국	흡습성	통기성	경 량 성
	대 구	흡습성	통기성	경 량 성
겨울이불	전 국	보온성	유연성	색·무늬·디자인
	대 구	보온성	유연성	색·무늬·디자인
요	전 국	보온성	유연성	색·무늬·디자인
	대 구	흡습성	유연성	색·무늬·디자인

5) 침구 구입시의 중시점

침구의 구입시의 중시점은 〈표 5〉에 나타내었다.

대구지역의 침구 구입시 중시점으로 여름 이불에서는 제품이 가진 기능적인 측면이 중시되어 흡습성(41.3%)과 통기성(35.6%)이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부드러우면서 중량은 가벼운 것을 중시한다고 응답하였다. 겨울 이불의 중시점은 각 연령층에 관계없이 보온성이 91.6%로 나타나, 겨울 이불에는 보온성이 가장 중요한 기능임을 재확인하였다. 그러나 이불의 보온성에 관한 연구는 극히 미비함으로 측정법의 확립과 충전물의 재료, 중량, 가중과 보온성의 상관, 온습도가 보온성에 미치는 영향 등이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요의 구입에 있어서는 흡습성(23.7%), 유연성(18.1%), 색·무늬·디자인(8.7%) 등을 중시한다고 응답하였으나 기타지역 조사에서는 보온성, 유연성, 색·무늬·디자인의 순으로 1위 순위가 전혀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구지역의 기후에 따른 침한(寢汗)에 의해 요의 흡습성이 다른 지역보다는 달리 더욱 더 중요하게 나타난 것으로 된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침구의 구입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항목은 흡습성, 통기성, 보온성, 유연성으로서, 소비자는 패션보다 기능적인 면을 더 중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나, 20대에서는 경량성 및 색·무늬·디자인 등의 패션성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어 순수한 침구의 기능면과 함께 유행성에도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사려되며 이와 같은 현상은 기타지역 조사의 결과와도 거의 일치하였다.

4. 침구의 사용에 관한 사항

침구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표 6〉에 나타내었다.

1) 여름철에 사용하는 침구

대구지역의 여름철에 사용하는 침구로서는 홑이불

〈표 6〉 침구의 사용에 관한 사항

항 목	구 분	단위 : 명(%)	
		전 국 2,750(100.0)	대 구 1,207(100.0)
여름철에 사용하는 이불	타월 1매	109(4.0)	25(2.1)
	모포 1매	108(3.9)	36(3.0)
	홑이불 1매	1,393(50.6)	693(57.4)
	홑이불 1매+타월 1매	946(34.4)	386(31.9)
	기 타	194(7.1)	67(5.6)
여름철에 사용하는 요	스폰지 요 1매	180(6.5)	73(6.0)
	요 1매	965(35.1)	339(28.1)
	요 2매	363(13.2)	117(9.7)
	스폰지+요 1매	132(4.8)	68(5.7)
	돗 자 리	881(32.1)	514(42.5)
겨울철에 사용하는 이불	기 타	229(8.3)	96(8.0)
	면 이불 1매	1,295(47.1)	634(52.5)
	양모 이불 1매	549(20.0)	164(13.6)
	우모 이불 1매	52(1.8)	14(1.2)
	견 이불 1매	373(13.6)	182(15.1)
	화섬 이불 1매	215(7.8)	96(7.9)
	이불 2매	159(5.8)	82(6.8)
기 타	107(3.9)	35(2.9)	
겨울철에 이불과 병행하는 것	모 포	634(23.1)	264(21.9)
	전기모포	97(3.5)	23(1.9)
	기 타	314(11.4)	153(12.7)
	없 음	1,705(62.0)	767(63.5)
겨울철에 사용하는 요	스폰지 요 1매	387(14.1)	139(11.5)
	면 요 1매	1,209(43.9)	546(45.3)
	화섬 요 1매	114(4.2)	50(4.1)
	양모 요 1매	292(10.6)	81(6.7)
	스폰지+면 요 1매	258(9.4)	186(15.4)
	스폰지+화섬 요 1매	60(2.2)	27(2.3)
	스폰지+양모 요 1매	102(3.7)	31(2.5)
	요 2매	175(6.3)	84(7.0)
겨울철에 요와 병행하는 것	기 타	153(5.6)	63(5.2)
	모 포	629(22.9)	276(22.9)
	전기모포	542(19.7)	140(11.6)
	기 타	381(13.8)	166(13.7)
없 음	1,198(43.6)	625(51.8)	

1매(57.4%)가 가장 많았고, 다음이 홑이불 1매+타월 1매(31.9%)였으며 연령층 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요의 사용에서는 돗자리 1매(42.5%), 요 1매(28.1%), 요 2매(9.7%)의 순으로 기타지역의 돗자리 사용에 비해 10.4%가 훨씬 더 많게 나타났다. 이는 분지라는 대구지역의 지형적인 특성이 고온 다습한 수면환경을 형성하므로 요의 사용보다는 통풍도 잘되고 쾌적한 느낌을 주는 돗자리의 사용이 훨씬 더 많게 나타난 것으로 사려된다. 그러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돗자리 사용은 감소하였고 요 1매 및 요 2매의 사용은 증가하

여 비록 여름철일지라도 침실 양식으로 딱딱한 온돌방의 이용이 많은 고령층의 요 사용에 있어서는 적절한 쿠션 및 유연성을 유지하면서도 쾌적한 침상기후를 형성할 수 있는 요의 두께 조절을 해야 하는 배려가 필요하다 할 수 있다.

2) 겨울철에 사용하는 침구

겨울철에 사용하는 침구는 여름철에 비해 극히 다양하여 대구지역에서는 이불은 면 이불 1매(52.5%)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견 이불 1매(15.1%), 양모 이불 1매(13.1%)의 순이었으며, 연령층에 따른 유의차도 인정되어($P < 0.05$) 연령층이 높을수록 면 이불의 사용은 낮고 양모, 우모, 견 이불의 사용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기타지역 조사 결과의 면, 양모, 견 이불의 순위와 비교하면 겨울철에 사용하고 있는 침구 역시 희망하는 침구의 순위와 마찬가지로 견을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신³⁾ 및 성⁴⁾의 겨울철에 사용하는 침구 순위에 면, 화섬, 혼섬 이불의 순위라는 연구 결과와 비교하면 순위가 많이 바뀐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1980년대에는 값이 싸면서도 사용 및 관리가 편리한 화섬 및 혼섬 이불의 이용율이 많았으나 오늘날에는 경제 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흡습성, 투습성, 보온성 등의 성능이 뛰어난 천연 소재의 침구로 그 선호도가 바뀌어져 가는 경향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대구지역에서 이불과 병용하는 것은 모포(21.9%)가 가장 많았으나 63.5%는 아무것도 병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조사 대상자의 약 1/4이 모포에 의해 이불의 기능을 보조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각 연령층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 < 0.05$).

이러한 결과는 조사자의 93.2%가 모포, 전기 모포 등을 병용한다는 일본의 조사 결과¹²⁾와는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일본의 경우 침실의 양식이 우리의 온돌과는 전혀 다른 다다미로서 별도의 난방장치 및 침구의 병용물이 필요한 결과로 생각된다.

한편, 겨울철에 사용하는 요는 면 요 1매(45.3%)가 가장 많았으며 요와 병용하는 것은 모포(22.9%)와 전기 모포(11.6%)라고 응답하였으며 각 연령층간에 의미 있는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기타지역 조사에서는 전기 모포의 사용이 19.7%로서 대구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이 나타났으며 연령에 따른 유의한 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3) 침구 사용시의 불만점

침구 사용시의 불만점을 <표 7>에 나타내었는데, 소비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침구에 대해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침구 사용시의 가장 불만점은 여름 이불에서는 흡습성, 통기성, 무거움 등이었고, 겨울 이불에서는 보온성, 무거움, 납작해짐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기타지역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대체로의 불만점이 일치하고 있었다.

요에서의 불만점으로 대구지역에서는 변색, 무거움, 납작해짐 등으로 나타났고, 특히 요가 무겁다는 불만은 연령층이 높을수록 증가하였다. 기타지역에서는 딱딱함, 무거움, 납작해짐의 순으로 1위 순위가 전혀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다습한 기후와 침상내의 발한 및 기타 분비물 등으로 인한 요의 변색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발생하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요 구입시 가장 중요하다고 밝혀진 흡습성과도 관계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7> 침구 사용시 불만점

구분	지역별	순 위		
		1	2	3
여름이불	전 국	흡습성	통기성	무거움
	대 구	흡습성	통기성	무거움
겨울이불	전 국	보온성	무거움	납작해짐
	대 구	보온성	무거움	납작해짐
요	전 국	딱딱함	무거움	납작해짐
	대 구	변 색	무거움	납작해짐

5. 침구의 관리에 관한 사항

침구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표 8>에 나타내었다.

1) 일광소독의 빈도

이론적으로, 위생적인 관리면에서의 일광소독은 하루 중 가장 자외선이 강한 오전 10부터 오후 2사이에 1주일에 1번 정도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나 이번 연구조사 결과에서 대구지역은 1개월에 한번(33.7%)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2주일(22.6%), 1주일(19.3%)의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연령에 따른 유의차

〈표 8〉 침구의 관리에 관한 사항

항 목	구 분	단위 : 명(%)	
		전 국	대 구
		2,750(100.0)	1,207(100.0)
일광소독의 빈도	1주일	403(14.7)	233(19.3)
	2주일	637(23.1)	273(22.6)
	1개월	929(33.8)	406(33.7)
	2~3개월	410(14.9)	152(12.6)
	3개월 이상	371(13.5)	143(11.8)
재다듬질의 빈도	3년	967(35.2)	348(28.8)
	5년	1,080(39.2)	470(39.0)
	하지않음	703(25.6)	389(32.2)
이부자리의 수납	그대로 둔다	56(2.0)	17(1.4)
	개어서 둔다	141(5.1)	55(4.6)
	장롱에 넣어 둔다	2,450(89.1)	1,101(91.2)
	반침에 넣어 둔다	79(2.9)	19(1.6)
	기 타	24(0.9)	15(1.2)

는 인정되지 않았다. 기타지역에서는 1개월(33.8%), 2주일23.1%, 2~3개월(14.9%)의 한 번으로 응답하였으며 연령에 따른 유의차도 인정되지 않아 대구지역이나 기타지역에서는 대체적으로 위생적인 침구생활을 영위한다고는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이불의 소재별에 따른 일광소독의 빈도를 조사¹²⁾하였는바, 면 이불의 경우 월 2~3일이 36.4%, 월 5~10일이 29.8%로서 일광 소독을 자주 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한일 양국의 기후조건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일본은 습기가 많은 지역이므로 침구의 일광소독을 자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2) 재다듬질의 빈도

대구지역에서 침구의 재다듬질은 5년이 39.0%, 3년이 28.8%로 조사 대상자의 대부분이 3~5년의 빈도로 침구의 솜을 재다듬질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혀 재다듬질을 하지 않는 가정도 32.2%로 나타났으며 연령에 따른 유의차는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기타지역에서의 재다듬질은 5년이 39.2%, 3년이 35.2%로 나타나 대구지역에 비해서는 재다듬질하는 가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에 따른 유의차도 인정되어(p<0.001) 연령층 별로는 40대가 3년에 1회에 53.6정도가 재다듬질을 하는 반면에, 20대에서는 0.5%를 나타내어 연령층이 높을수록 재다듬질의 빈도수도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또한 5년전과 비교하면 재다듬질의 간격이 점차 커지는 경향이 있고 전혀 재다듬질을 하지 않는 가정도 증가 추세에 있다.

3) 침구의 수납

침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의 침구의 수납방법은 대구지역 주부의 대부분인 91.2%가 장롱에 넣어둔다로 응답하였으며 연령층간에 따른 유의차는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기타지역의 89.1%가 장롱에 넣어둔다로 응답하여 대구지역에 비해 약간 낮았는데 이는 침대의 사용이 대구지역에 비해 약간 높은 것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연령층간에 따른 유의차도 인정되었다(p<0.05).

IV. 결 론

소비자에게는 수면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생산자에게는 수요의 방향에 적합한 상품 기획을 요구할 목적으로, 대구광역시 1,207명과 전국 8대 도시지역 2,790명의 주부를 대상으로 침구의 구입·사용·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구지역과 기타지역을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대구지역은 지형적 특색에 따른 기후의 영향으로 침실의 냉방방식으로는 에어컨의 사용이 많았으며, 난방방식으로는 중앙난방식의 이용이 낮았고 고령층으로 갈수록 난로와 전기장판의 의존도가 높게 나타났다.

2. 침구의 구입처로는 기타지역에 비해 시장에서의 구입이 많았으며 구입 빈도도 5~6년이 가장 많았다.

침구 구입시 중시점으로는 여름 이불에서는 흡습성, 통기성, 경량성, 겨울 이불에서는 보온성, 유연성, 색·무늬·디자인을 중요시하였으며 이는 기타지역의 조사와 일치하였으나, 요에서는 대구지역이 흡습성, 유연성, 색·무늬·디자인으로 나타난 것에 반해 기타지역에서는 보온성, 유연성, 색·무늬·디자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대에는 경량성 및 색·무늬·디자인 등의 패션성을 요구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3. 여름철 침구로는 홑이불 1매와 돗자리가 가장 많아 분지라는 대구지역의 고온 다습한 기후특성을 잘 나타내어 주었으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돗자리 사용은 감소하고 요 1매 및 요 2매의 사용이 증가하였으며,

겨울철 이불로는 면, 견, 양모이불의 순으로 견의 선호도가 기타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4. 여름철 이불 사용시 불만점으로는 흡습성, 통기성, 무거움의 순이고, 겨울철 이불에서는 보온성, 무거움, 납작해짐의 순으로 기타지역 조사의 불만점과 대체로 일치하였으나, 요에서는 대구지역은 변색, 무거움, 납작해짐의 순으로 기타지역에서는 딱딱함, 무거움, 납작해짐의 순으로 나타났다.

5. 침구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는 지역에 관계없이 일광소독의 빈도는 1개월에 1회, 재다듬짐의 빈도는 5년에 1번, 침구의 수납은 "장롱에 넣어둔다"가 가장 많았다.

참 고 문 헌

1. 人間-熱環境系編集委員會, 「人間-熱環境系」, 日刊工業新聞社, 東京, p.239, 1989.
2. 엄희영, 온돌방에서의 침장 사용에 관한 연구-고궁원을 중심으로-, 수도권여자사범대학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9.
3. 신상무, 침장류 사용실태에 관한 연구-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4.
4. 成秀光, 李松子, 韓國のふとんに關する實態調査研究, 日本纖維製品消費科學會誌, 33(5), 248-252, 1982.
5. 野口二三子, 吉成ツヤ, 寢具に關する實態調査, 日本衣服學會誌, 19(3), 187-196, 1989.
6. 水梨サワ子, 宮川キクヨ, 松本紀代子, 庄司 光, 寢具の着心地に關する調査研究(第1報), 日本纖維製品消費科學會誌, 13(7), 247-281, 1972.
7. 水梨サワ子, 宮川キクヨ, 松本紀代子, 庄司 光, 寢具の着心地に關する調査研究(第2報), 日本纖維製品消費科學會誌, 13(8), 323-328, 1972.
8. 松本紀代子, 在間辛子, 寢具の着心地に關する調査研究(第1報), 聖母女學院短期大學 研究紀要, 3, 17-25, 1969.
9. 松本紀代子, 寢具の着心地に關する調査研究(第2報), 聖母女學院短期大學 研究紀要, 4, 15-34, 1979.
10. 酒井清子, 寢具の着心地に關する調査研究(第1報), 名古屋女子大學 紀要, 17, 41-49, 1972.
11. 酒井清子, 寢具の着心地に關する調査研究(第2報), 名古屋女子大學 紀要, 27, 25-33, 1981.
12. 全日本わた寢裝品製造協同組合, 「寢具について消費者アンケート調査報告書」, 1984.